

## 1. 중국의 가금류 사육 및 수출입 정보

베이징지사

### 1-1 중국의 계란, 닭 등의 한국 수출이 가능한가?

- ▶ 한국과 중국은 양국 모두 동물역병유행국가(지역)로부터 동물 및 계란 등 관련제품 수입을 금지 중
- AI 발생 전력이 있는 한국과 중국은 각기 상대방 국가로의 가금류와 계란, 그 부산물 등을 수출입하지 못함(열처리를 한 레토르트 삼계탕은 예외이나, AI발생지역에서 10KM 밖에서 자란 닭이어야 함)

### 1-2 중국의 가금류 전체 사육규모 및 지역별 통계

- ▶ 중국의 가금류 사육규모는 2015년 기준, 178.6억마리, 2012년의 178.8억마리 수준을 회복했으며 출하량이 가장 많은 성은 산둥, 하남, 요녕성이 차지하고 있음

Ⅰ 2012~2015년도 중국 전체 가금류 사육규모 통계 Ⅰ

연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사육량(억마리)	178.8	176.1	173.2	178.6

\* 통계 출처 : 중국농업통계자료

Ⅰ 2015년도 중국 지역별 가금류 사육규모 통계 Ⅰ

순위	지역	출하량(만마리)	미 출하량	합계
1	산둥	176,896	61,328	238,224
2	하남	91,550	70,020	161,570
3	요녕	86,494	44,727	131,221
4	광둥	97,423	32,458	129,881
5	광서	80,825	31,330	112,155
6	사천	66,155	39,496	105,651
7	안휘	75,286	23,860	99,146
8	허북	58,435	37,805	96,240
9	호북	51,223	35,098	86,321
10	강서	47,656	22,032	69,688

\* 통계 출처 : 중국농업통계자료

### 시사점

현재 한국의 심각한 AI 상황에 따라 중국의 닭 등 가금류 및 계란 등 부산물의 한국 수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, 중국도 AI 발생전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의 검역협정에 따라 닭이나 계란 등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음

- 열처리된 레토르트 삼계탕의 경우는 예외로, 정부가 2006년부터 중국과 검역협상을 통해 지난해 수출을 시작했으며, 해당 닭은 반드시 AI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10KM 밖에서 자란 닭이어야 함
- 치킨 등 가금류 제품의 수출은 불가능하나 소스 등 부가제품으로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음. 소스의 경우 중국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성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aT의 현지화지원사업(global.at.or.kr)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확인 필요